

# 넥스트에라 에너지 (NEE.US)

역대급 분기 수주로 확인된 시발 전력 슈퍼 사이클

- Q4FY25 실적을 통해 FPL의 견고한 이익 방어와 NEER의 역대급 수주를 확인
- 과거 대비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및 원전-SaaS 기반 리레이팅 잠재력 고려 필요
-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및 미국 전력 수요에 기반한 장기 성장성이 주가 하단 지지

## Q4FY25 실적: 매출 미스를 압도한 'AI 수주'의 가치

4 분기 매출액은 65.0 억 달러(+20.7% YoY)로 컨센서스를 9.4% 하회했으나, 조정 EPS 는 0.54 달러(+1.9% YoY)를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충족했다.

**FPL (규제 유틸리티):** 조정 EPS 가 컨센서스를 18.0% 상회했다. 분기 21 억 달러의 CapEx 집행이 규제 자산(Rate Base) 확대에 이어졌고, 고객 수 증가(+1.5%)와 업계 최저 수준의 O&M 비용 구조가 기상 악화 영향을 상쇄했다.

**NEER (독립발전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46.2% 증가했으나 풍력 지수 부진(평년 대비 96%)으로 컨센서스에는 미달했다. 신규 설비 가동 및 수주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 비용으로 인해 조정 EPS 는 전년동기 및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실적 발표 후 주가는 1.97% 상승하며 매출 컨센서스 하회를 용인했다. 이는 시장이 단기 재무 수치보다 분기 역대 최대 수주(3.6GW)에 담긴 장기 성장성에 베팅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이퍼스케일러향 전력 수요가 실질적인 계약으로 입증되며 향후 이익 가시성이 더욱 높아진 점이 투자심리를 개선시킨 핵심 동력이다.

## 밸류에이션: 실적 가시성과 멀티플 리레이팅 잠재력

NEE 의 현재 주가(87.57 달러) 기준, 경영진이 제시한 2026 년 EPS 가이드스(3.92~4.02 달러)를 대입한 PER 멀티플은 21.8~22.3 배 수준이다. 이는 동사의 12M Fwd PER 5년 평균(24.7 배)과 비교할 때 약 10~12%의 추가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사의 누적 수주물량은 29.8GW 로 향후 수년간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며, 미국 내 강력한 전력 수요를 바탕으로 4 분기 역대급 신규 수주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가이드스를 상회하는 실적 달성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최근 구글과 Duane Arnold 원전 재가동 계약을 체결한 점과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SaaS 개발을 진행함에 따라, AI 인프라주로서의 속성이 부각되며 멀티플 리레이팅이 진행될 여지를 보유하고 있다.

## ▶ 현재주가 / 목표주가 컨센서스

현재주가('26.01.28): \$87.57

목표주가 컨센서스: \$94.73

## ▶ 투자 의견 컨센서스



## Stock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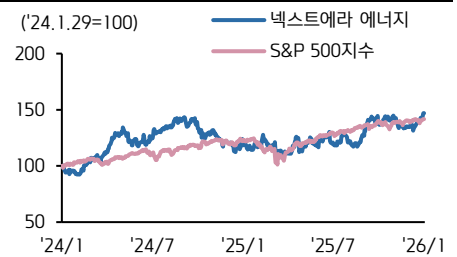
산업분류	전기 공익 사업체
S&P 500 (01/28)	6,978.03
현재주가/목표주가	87.6 / 94.7
52주 최고/최저 (\$)	89 / 61.7
시가총액 (백만\$)	182,374
유통주식 수 (백만)	2,083
일평균거래량 (3M)	9,648,584

## Earnings & Valuation

(백만 \$)	FY24	FY25	FY26E	FY27E
매출액	24,753	27,412	31,525	34,315
영업이익	7,479	8,280	11,685	13,084
OPM(%)	30.2	30.2	37.1	38.1
순이익	7,063	7,683	8,413	9,280
EPS	3.43	3.71	4.01	4.38
증가율(%)	8.2	8.2	8.1	9.2
PER(배)	22.2	27.3	21.8	20.0
PBR(배)	2.9	3.1	2.9	2.7
ROE(%)	14.2	13.1	13.2	13.2
배당수익률(%)	2.6	2.6	2.8	3.0

## Performance & Price Trend

주가수익률 (%)	YTD	1M	6M	12M
절대	9.1	9.1	21.7	23.5
S&P Index	1.9	1.0	9.5	15.5



자료: Bloomberg 컨센서스, 키움증권 리서치 주) Non-GAAP 기준

**투자 포인트: 규제 사업의 안도감과 AI 발 성장 모멘텀**

**규제 사업(FPL)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수익 방어력:** FPL 은 2025 년 한 해 동안 약 89 억 달러의 자본 투자를 집행하며 규제 자산을 전년 대비 약 8.1% 성장시켰다. 특히 업계 평균 대비 71% 낮은 비연료 부문 O&M 비용 구조를 통해 강력한 비용 효율성을 증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4분기 기상 악화에 따른 전력 사용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조정 EPS 를 기록했다. 최근 2026~2029 년 4 개년 요금 합의안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향후 400 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CapEx 집행과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위한 규제적 토대를 확정 지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역대급 수주로 입증된 AI 및 데이터센터향 성장 모멘텀:** NEEER 은 분기 역대 최대치인 약 3.6GW 의 신규 수주를 달성했으며, 2025 년 연간으로는 총 13.5GW 의 신규 착공 물량을 확보하며 강력한 외형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현재 누적 수주 잔고는 약 29.8GW 에 달해 향후 수년간의 매출 가시성이 높다. 특히 구글과의 Duane Arnold 원전 재가동 계약 및 'Rewire AI' 파트너십은 NEE 가 단순한 유틸리티를 넘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전력 인프라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음을 시사한다.

**상향된 장기 가이드선스와 차별화된 주주 환원 정책:** 경영진은 이번 발표에서 2025 년 실적을 베이스로 2035 년까지 연평균 8% 이상의 EPS 성장 목표를 제시하며 장기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는 기존의 성장 경로를 한 단계 더 연장한 것으로, 전력 수요 슈퍼사이클의 수혜가 장기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2026 년까지 연간 약 10%, 2026~2028 년까지 연 6%의 배당 성장을 예고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리스크 요인: 수요 변동성 및 대외 변수 모니터링 필요**

첫째, 미국 내 전력 수요의 변동 가능성이다.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부하(Large Load) 수요가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계통 연계나 인허가 지연이 발생할 경우, 예상보다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 둘째, 매크로 환경 변화에 따른 수익성 저하 리스크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조달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 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신규 프로젝트의 이익률을 압박할 수 있다. 셋째, 기상 요인 등 기타 변수다. 평년 대비 부진한 풍력 자원이나 온화한 기후에 따른 전력 사용량 감소 등 통제 불가능한 외부 변수가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

넥스트에라 에너지 FY25 4Q ('25.10.01~12.31)

구분	FY25 4Q	컨센서스 비교		YoY 비교		QoQ 비교	
	(백만 USD)	발표치	컨센서스	차이	FY24 4Q	성장률	FY25 3Q
매출액	6,500	7,177	-9.4%	5,385	20.7%	7,966	-18.4%
영업이익	1,586	2,807	-43.5%	941	68.5%	2,527	-37.2%
영업이익률	24.4%	39.1%	-14.7%p	17.5%	6.9%p	31.7%	-7.3%p
순이익	1,133	1,179	-3.9%	1,095	3.5%	2,348	-51.7%
EPS (USD)	0.54	0.53	1.1%	0.53	1.9%	1.13	-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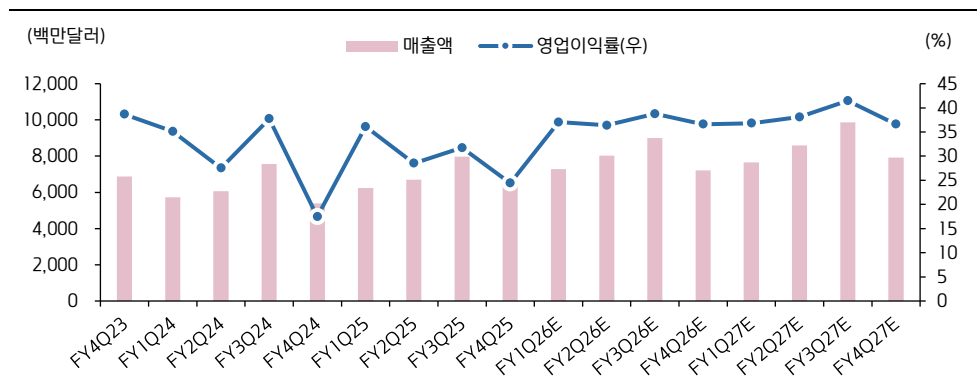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1-28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넥스트에라 에너지 향후 실적 컨센서스 표

구분	분기 컨센서스				연간 컨센서스			
	(백만 USD)	FY26Q1	YoY 성장률	FY26Q2	YoY 성장률	FY26	YoY 성장률	FY27
매출액	7,278	16.5%	8,023	19.7%	31,525	15.0%	34,315	8.8%
영업이익	2,696	19.5%	2,919	52.8%	11,685	41.1%	13,084	12.0%
영업이익률	37.0%	0.9%p	36.4%	7.9%p	37.1%	6.9%p	38.1%	1.1%p
순이익	1,871	-8.2%	2,287	5.7%	8,413	9.5%	9,280	10.3%
EPS (USD)	0.94	-5.4%	1.09	4.1%	4.01	8.1%	4.38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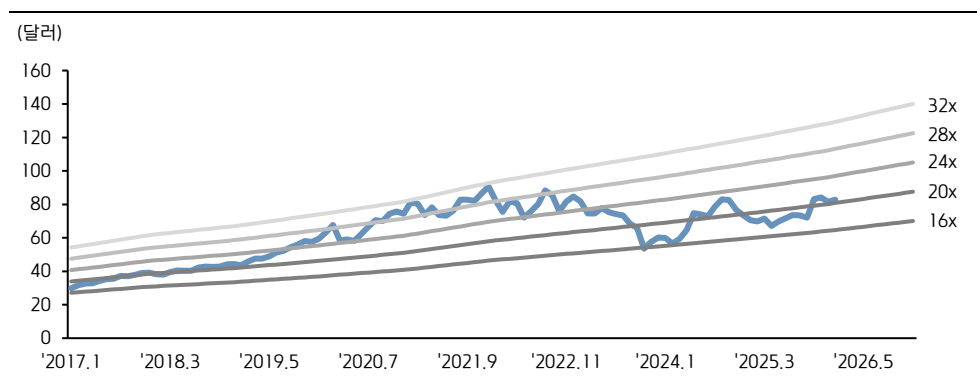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1-28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넥스트에라 에너지 분기 실적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1-28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넥스트에라 에너지 12M FWD PER 밴드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컨센서스는 2026-01-28 블룸버그 기준, Non-GAAP 기준

넥스트에라 에너지 상세실적표

(백만 달러)	FY4Q24	FY3Q25	FY4Q25	YoY(%)	QoQ(%)
<b>[GAAP]</b>					
매출액	5,385	7,966	6,500	20.7	-18.4
매출원가(연료비)	1,092	1,423	1,173	7.4	-17.6
매출총이익	4,293	6,543	5,327	24.1	-18.6
영업비용	3,386	4,159	3,804	12.3	-8.5
유지비용	1,316	1,410	1,596	21.3	13.2
감가상각비	1,513	2,096	1,616	6.8	-22.9
법인세외 제세	557	653	592	6.3	-9.3
사업/자산 처분손익	34	143	63		
영업이익	941	2,527	1,586	68.5	-37.2
이자비용	725	1,153	586	-19.2	-49.2
지분법투자손익	-845	204	82	-109.7	-59.8
AFUDC	51	48	51	0.0	6.3
투자 및 기타 자산 처분손익	31	68	11	-64.5	-83.8
원전 해제 펀드 평가 손익	-41	63	42	-202.4	-33.3
기타 급여관련 수익	65	67	66		
기타영업외손익	117	61	66	-43.6	8.2
세전이익	1,044	1,885	1,318	26.2	-30.1
법인세 비용	171	-250	225		
순이익	873	2,135	1,093	25.2	-48.8
비지배지분 귀속 순손실	330	303	442	33.9	45.9
NEE 귀속 순이익	1,203	2,438	1,535	27.6	-37.0
EPS(달러/주)	0.58	1.18	0.73	25.9	-38.1
희석 가중평균주수(백만주)	2,062	2,071	2,089	1.3	0.9
<b>[Non-GAAP]</b>					
조정 순이익	1,095	2,348	1,133	3.5	-51.7
조정 EPS	0.53	1.13	0.54	1.9	-52.2
<b>[영업데이터]</b>					
순매출					
FPL(Florida Power & Light)	3,855	4,161	4,272	10.8	2.7
NEER(NextEra Energy Resources)	1,448	2,267	2,117	46.2	-6.6
Corporate and Other	82	115	111	35.4	-3.5
영업이익					
FPL(Florida Power & Light)	1,248	1,797	1,507	20.8	-16.1
NEER(NextEra Energy Resources)	-215	801	191	흑전	-76.2
Corporate and Other	-92	-71	-112	적지	적지

자료: 넥스트에라 에너지, 키움증권 리서치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